

# ‘상품공급점’ 미끼로... 대기업 SSM ‘꼼수 입점’

## 광주지역 이마트·롯데 7곳 영업중 중소상인들 편법 가맹점 중단 촉구

대기업 유통업체가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개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남구 진월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위장 개점’ 시도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대기업 유통업체가 또 다른 꼼수를 부려 골목상권을 장악하려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부 등은 지난해 말 이후 현재까지 대기업 유통업체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상품공급점이라는 부도덕한 방법을 통해 상생의 도를 깨뜨리고 지역상권 장악에 집착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상품공급점이란 중소기업마케팅이 새로 개장하거나 증설하면서 대기업 유통업체로부터 일정량의 상품을 공급받겠다는 조건으로 간판과 로고를 달고 영업하는 편법 가맹점이다. 경기불황과 업체간 경쟁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유통의 편의와 브랜드 효과를 얻기 위해 고안한 신종 영업형태로 운영은

개인 업주가 주도하지만 대기업 유통업체가 간다는 점에서 기존 중소기업마케팅과 차이가 난다.

실제로 광주지역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곳이 동·서·남·광산구에 각각 1곳씩, 북구에 2곳 총 6곳이 있으며 광산구에는 슈퍼센터 롯데슈퍼 상품공급점이라는 이름으로 1곳이 영업중에 있다. 또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형식의 슈퍼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지부(준)는 19일 남구 진월동 신진마트의 기습 간판 설치시도와 관련 자료를 내고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중소기업들을 개설한 뒤, 상품공급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는 방식으로 우회 입점을 시도하고 있다”며 “상생협약을 짓밟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꼼수 입점 시도를 중단하고 당장 철수하라”고 촉구했다.

김중재 중소기업살리기 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이라는 것은 대기업들이 현행 법의 허점을 노려 개발한 편법 가맹점이다. 상생의 도를 깨뜨리고 지역상권 장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부도덕한 처사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자들은 상품공급점 형식의 개점과 증설은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한다. 불황과 경쟁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고, 브랜드 효과를 기대하며 영업하는 것은 당연한 상업논리라는 것이다.

지난 1월 광주시 동구 장동로터리 인근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을 낸 조상균(40)씨는 “중소마트가 난립하면서 경쟁이 치열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살아가기 위한 선택이고 실제로 브랜드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남구는 18일 지난 9일 간판을 교체하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간판을 내걸려는 신진유통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9일 광주시 동구 장동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 간판을 단 중소기업주 퍼가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익산국토청 부실감리 ‘투 아웃제’

### 경고 2회째 무조건 퇴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9일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 감리원에 대해 2회 이상 경고시 교체를 요구하는 ‘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익산국토청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상반기 감리업무 이행 실태 지도와 점검을 이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익산국토청이 발주한 도로공사 현장 가운데 공정률이 10%를 넘은 46개 현장이 대상이다.

감리이행 실태 점검의 주요 내용은 재정집행 및 공정관리의 적

정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실태, 주요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의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또 책임감리원에 대한 평가는 사업계획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처리 과정, 각종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현황보고 등 의사소통 능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익산국토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점수로 환산한 뒤 상위 10% 감리회사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하위 10%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한 뒤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감리원은 교체를 요구하는 ‘투 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전남 기업 홍보·수출 지원 서울 용산역에 ‘비즈니스 라운지’

서울 용산역에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가 들어선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9일 광주·전남도와 함께 지역 기업인들이 상담과 제품 홍보, 사무실,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라운지를 서울 용산역 4층에 개설해 오는 4월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라운지는 기업의 해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 수출을 촉진하고, 기업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친 기업도

시의 이미지를 높일 목적으로 설치된다. 광주상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라운지 개설과 운영을 맡고, 광주·전남도는 사업비와 행정적 지원 및 각종 사업 지원 등을 협력한다.

광주상의는 20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광주·전남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비즈니스 라운지 개소 운영 업무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2분기 외국인력 신청 내달 8일부터 접수

###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19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2013년도 2분기 신규 외국인력 신청을 4월8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14개국이다.

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홈페이지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사업장별 점수를 산출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한다. 점수는 15일까지 받으며 발표는 26일이다.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55-9966). /임동률기자 exian@

## ICT분야 첫 中企협동조합 광주서 출범

### 호남·수도권 60개 업체 참여...“대기업 독점 공동 대응”

21세기 아이콘으로 등장한 ICT(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분야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전국 최초로 출범할 예정이다. 조합은 중소기업 육성과 강화와 대기업의 ICT분야 입찰 제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옮겨 올 한국전력과 이달 초 인근 신사옥에서 업무에 들어간 우정사업정보센터, 2007년 광주에 문을 연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내 ICT 3대 기관의 광주 이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는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

서 그동안 첨예한 경쟁관계에 놓였던 중소기업들이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대기업의 독점에 맞서기 위해 ‘공(公)법인’ 형태로 뭉친 것이다.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남산산업(주) 김창식(56) 대표는 “중소기업 육성 강화와 대기업의 ICT분야 입찰 제한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내년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옮겨 올 한국전력과 이달 초 인근 신사옥에서 업무에 들어간 우정사업정보센터, 2007년 광주에 문을 연 광주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내 ICT 3대 기관의 광주 이전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광주에는 옛 전남도청 자리에 들어

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기술(CT)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이른바 ‘콘텐츠 빅 3 기관’이 조만간 동지를 틀게 된다. ICT산업 육성에 혁신적 계기가 될 거대한 ‘융합벨트’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업체들은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디자인 업체가 대부분이다. 조합 측은 수익사업과는 별개로 대학 등과 연계한 ICT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조합 출범은 2005년 광주 IT업체 대표들이 결성해 활동해 온 ‘IT 경영자협의회’가 모태가 됐다.

이들 중 이번 창립멤버로 등록된 광주 업체는 40여 개로 나머지는 수도권과 대전·전북지역 업체다. 전체 종사자 수는 1700여 명이다. 조합 측은 앞으로 회원업체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LH 광주전남본부 ‘부정·부패추방 청렴실천결의대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철)가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추방 및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함께 신뢰받는 으뜸 공기업이 되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용철 본부장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철)가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추방 및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함께 신뢰받는 으뜸 공기업이 되기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78.56(+10.38)	▲ 코스닥지수 550.01(+8.92)	▲ 금리(국고채 3년) 2.60%(+0.01)	▼ 원·달러 환율 1111.60원(-3.00)
----------------------------	--------------------------	------------------------------	------------------------------

### 눈이 피로하면 온몸이 피로하다!

눈은 건강의기능과 연관이 있다. 눈의 과로한 환경과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뜻밖의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고뇌와 분노로 말미암아 간기능이 울결되어 화(火)로 변하여 그 화기가 인체 상부 즉 머리와 눈으로 펼쳐 눈이 침침하고 아득할 정도로 피로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안구건조**와 한다. 말기상환에 가까워지면 **눈에 통증**을 느끼며 눈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인다라한의원** 광천사거리 광천파출소 맞은편 대한한약사협회 의료광고심의과 제120106-중-0819호 (광주) 광주점 062-368-5075

www.indara.co.kr

---

### 안구건조, 눈피로, 만성피로, 해결책을 찾다!

눈이 건조하고 피곤한 눈피로와 해결법 | 스트레스와 과로에서 오는 만성피로 증상과 해결법

**눈의 피로의 다양한 증상들**

-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하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 눈이 몹시 짝깍하고 눈물이 아프다
- 오후만 되면 눈이 팽팽해지고 눈앞이 뿌옇다
- 다른사람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기 어렵다
- 마음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낸다
- 입이 쓰거나 마르고 가끔 윗구멍이 걸리거나 아프다

Home Doctor 시리즈 출간 전국서점 판매중

###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께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박1**

가격안내 (미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 24시 유스퀘어사우나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